

2025년 필리핀 중간선거, 두테르테 진영 예상 밖 약진

- (잠정 결과) 2025년 5월 12일 필리핀에서 상원의석 절반, 전체 하원의석, 지방정부 선출직을 뽑는 중간선거가 개최되었으며, 비공식 집계 결과 두테르테 진영이 예상 밖으로 약진함.
- 이번 중간선거(midterm election)에서는 상원 12석, 하원 317석을 포함해 지방정부 선출직(주지사, 시장, 지방의회 의원 등) 등 총 18,200명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짐.
 - 대통령 임기 6년의 중간 시점에 3년마다 개최되는 중간선거는 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고, 2028년 개최 예정인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를 가늠하는 신호탄으로 중요성이 큼.
 -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2025년 7월 개최 예정인 상원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여부 최종 심판을 앞두고 있어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됨.
 - 비공식 집계 결과 상원 12석 중 마르코스 현 대통령 진영이 5석, 두테르테 부통령 진영이 5석, 무소속 진보 성향 의원이 2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,¹⁾ 선거 직전 여론조사(두테르테 진영 2석 확보 예상) 대비 두테르테 진영이 많은 의석을 확보함.
 - 특히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오랜 보좌관이었던 봉 고(Bong Go) 의원과 ‘마약과의 전쟁’을 주도했던 델라 로사(Dela Rosa) 의원이 각각 1, 3위 득표율을 기록하며 상원의원에 재선됨.
 - 이 밖에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(ICC)에 수감 중임에도 남부 다바오 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고, 막내 아들 세바스찬 두테르테는 다바오시 부시장으로, 장남과 손주들도 하원의원, 시의원으로 선출되어 두테르테 가문 세력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재한 것으로 나타남.

표 1. 2025년 5월 필리핀 중간선거 개요

구분	주요 내용
유권자 수	약 6,900만 명
선출 대상 공직자 수	18,200명(상하원, 지방의회 의원, 지방정부 선출직 등 포함)
상원의원	12석(상원 24석의 절반, 임기 6년, 2회 연임 가능)
하원의원	317석(전체 하원, 임기 3년, 3회 연임 가능) - 254석은 직접 선거로, 63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
차기 대선 개최년도	2028년

자료: Nikkei Asia(2025. 5. 12), “Philippines midterms to test Marcos popularity against Duterte.”

1) 2025년 5월 14일 오후 12시 51분 비공식 집계 기준(개표율 97.36%), “Halalan 2025.” <https://halalanresults.abs-cbn.com/> (검색일: 2025. 5. 14).

- (의미) 이번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파면과 2028년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마르코스-두테르테 진영 간 상원의석 확보를 위한 접전이 펼쳐짐.
-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동맹을 결성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으나, 친미 외교정책 추진, 두테르테 부통령의 국방부 장관직 요청 거절 및 재량예산 삭감,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ICC 수감 등 이유로 두 정치가문간 동맹이 붕괴됨.
 -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(2016~22년)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수천 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25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(ICC)에 체포되어 네덜란드 헤이그에 수감 중임.
 -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예산 유용 의혹, 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암살 모의 발언 등 혐의로 2025년 2월 하원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됨.
 -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에 따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의회가 2025년 7월에 열릴 예정이며, 두테르테 진영이 기존 상원 12석과 이번 중간선거에서 선출한 12석의 합인 24석 중 최소 9석을 확보해야만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음.
 - 마르코스 진영이 전체 상원의석(24석)의 2/3인 16석을 확보할 경우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탄핵 최종 심판에서 파면되고, 평생 피선거권이 박탈됨.
- (전망) 중간선거에서 두테르테 진영이 예상 밖으로 선전했으나, 이번 상원 선거 결과로는 2025년 7월 예정된 상원 의회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당분간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공식 개표 결과는 5월 19일경 발표될 예정이며, 5월 14일 오후 1시 기준 개표율이 97% 이상으로 상원의원 선거 결과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임.
 - 기존 상원의원 12인 중 2인은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, 이번 선거의 비공식 집계 결과 두테르테 지지 의원이 5인 당선된 것으로 나타나 탄핵안 기각을 위해서는 최소 2인의 추가 지지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.
 - 2025년 7월 상원에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, 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, 현재 친미 성향인 필리핀의 외교 정책이 친중 성향으로 변화하는 등 외교정책의 큰 변화가 예상됨.
 - 두테르테 부통령의 탄핵안 가결시 부통령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필리핀 남부를 대표하는 정치가문인 두테르테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,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으로 혼란이 예상됨.